

한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이 용 조*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로 본 박물관의 활동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인 순종(純宗)이 창경궁에 「李王家博物館」을 발족하여(1908), 삼국시대의 불교 공예품을 비롯한 조선시대 미술품을 수집·보관한 것을 처음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¹⁾

대학박물관의 효시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었던 보성전문학교가 안함평(安咸平)여사의 회사금을 기본으로,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유물을 수집·전시(1934)한 것에서 찾을 수 있고, 광복 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1935), 경성제국대학(1941)을 포함하여 3개교에 불과하였다.²⁾ 그런데 광복과 6·25전쟁 후 공·사립박물관의 설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한국박물관협회의 결성(1991)으로 현재는 가입회원 수가 129개 기관으로 대폭 증가되었다.³⁾

대학박물관의 경우 협회를 결성(1961. 5. 5)하고, 문교부의 교육설치기준령(1967)과 개정 대학설치기준령(1970)에서 대학박물관의 내용이 규정되면서 급격하게 설립되어 협회에 가입한 학교가 현재(1998. 12. 31) 78개교라는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가입회원이 200개가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되고, 양과 수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하여, 공동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점·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개정운동을 펴 드디어 법안통과(1999. 1.)를 실현시켰다.⁴⁾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서, 이 글에서는 박물관 가운데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현황과 과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이전까지의 대학박물관은 유물의 전시활동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70년대에 들어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겸 한국박물관학회 회장

1) 윤세영, 1982.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 『古文化』(한국대학박물관협회) 21, 41.

2) 진홍섭, 1982. 「韓國大學博物館의 回顧와 展望」 『古文化』21, 5.

3) 한국박물관협회, 1999. 『박물관소식』봄호, 25~27 참조.

4) 지루하고 힘들었던 개정운동을 끝까지 마무리짓도록 하여 준 한국박물관협회 허동화 회장(현 명예회장), 그리고 문제의 제기부터 끝까지 이끌어 간 유원적 교수(당시 목포대학교 박물관장)와 여러 면으로 어려울 때마다 힘을 보태 준 대학박물관협회 임원들, 정정원 관장(부산대)·정양모 관장(국립중앙박물관)·백승길 위원장((COM한국위원회)·이난영 교수(동아대)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입장의 차가 컸음에도 이것을 잘 조정하여 주고, 발의까지 하여 준 이경재 의원을 비롯한 정동채·지대섭 의원과 최희준·신영균·배종무 의원 등, 그리고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 특히 박문석 국장·박광무 과장·최판진 사무관 등은 굳은 일을 도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서면서 대학박물관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되었고, 또한 팔당댐·대청댐·충주댐·주암댐·중부고속도로 등의 많은 대단위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대거 발굴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대학박물관은 학술조사·연구활동·전시·출판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사회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교육 활동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것은 대학박물관도 이제는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고, 또 이로써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수의 대학들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기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대학박물관 현황과 안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의 극복을 위해 앞으로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한국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성격

ㄱ. 회원교의 수와 의미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창립(1961. 5. 5)과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창립 취지문에 18개교가 연명하였으나, 실제로는 9개교(경북대·고려대·동아대·서울대·숭실대·이화여대·전남대·충남대·홍익대)만 박물관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대학들은 협회 설립 취지문에 찬동한 대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

이러한 회원수는 나라의 발전과 대학교육설치기준령(1967)·개정 대학설치기준령(1970)에 따라 급격한 양적 팽창을 가져와 1982년에는 가입 회원교가 52개교나 되어 전국 대학수 97개교에 비하여 처음으로 과반수 회원교를 갖게 되었다.⁶⁾ 그뒤에도 회원교는 늘어나서 현재(1998. 12.31) 78개교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미가입 대학박물관 6개교를 합하면 전체 대학수 142개교의 59%를 차지한다.⁷⁾

대학박물관의 가입이 이렇게 늘게 된 것은 i)(전문)대학의 가입 권장, ii)같은 대학안의 2종류의 박물관 가입 동의 등과 같은 협회의 적극적 활동, iii)주변 대학의 박물관 활동에 따른 위기감, iv)전공학자들의 배출이 점차 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적·수적으로 증가한 대학박물관은 대학이 소재한 위치나 전공학자들의 학문영역에 따라 종합박물관의 성격보다는 특수·전문박물관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학박물관이 갖고 있는 영세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종합박물관으로써의 구색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물 구입비가 폭등하여 구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점도 있으며, 또한 각 지역에 있는 국·공립박물관의 건립이 늘게 되어, 여기에 따른 학문적 요구를 국·공립박물관 쪽으로 넘기게 되는 안이한 자세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전공자의 전문성과, 특히 고고학자들의 엄청난 지역과 국가에서의 조사·참여 문제로 기획을 세워서 유적을 조사할 여유를 못 갖게 된 사실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학박물관의 특수·전문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행사로는 처음 치룬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1986)의 문화예술축전 행사에 참가한 10개 대학박물관의 전시내용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5) 진홍섭, 1982. 「앞 글」 10~11.

6) 「위 글」 19.

7) 조한희, 1998. 「韓國 大學博物館의 效率的 運營」(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참조.

서울대 - 선사유물, 고려대 - 호랑이 그림, 숭실대 - 기독교 자료, 이화여대 - 도자기, 동국대 - 불교미술, 육사 - 군사유물, 충북대 - 구석기, 영남대 - 삼국시대, 동아대 - 가야시대

위와 같은 소장유물과 특색은 각기 대학박물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성격으로 발전하여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학술조사 활동

학술활동은 크게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조사활동만을 다루고자 한다.

조사활동에는 지표·시굴·발굴 등의 과정이 수반되는 절차가 있게 마련인데,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는 기록으로 보고된 사실이 드물어서 여기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얻어서 실시되는 발굴조사와 대학박물관의 조사 비율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⁸⁾

연도 구분	92	93	94	95	96	97	98
전체 허가건수	86	95	102	105	145	192	254
대학박물관 조사건수	49	57	68	89	113	126	124
%	57	60	66.7	77.4	77.9	66.7	55.3

〈표 1〉에서 나타난 수치처럼 산업화와 국가기간 산업 확충에 따른 현상변경으로 발굴 허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 대학박물관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적구성과 시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과 지역사회의 봉사라는 차원에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적극 참여하는 대학박물관의 성실한 자세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대개의 조사가 현상변경에 따른 구제발굴이고, 원래의 학문목적에 따라 기획·실시되는 학술발굴의 진행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조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로 과학적·고고학적 발굴이 실시되기 어려워서, 대학박물관이 지녀야 할 학문적 순수성과 정체성을 등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ㄷ. 개관과 관람

정진봉 학예연구원(경희대)의 조사에 따르면,⁹⁾ 대학박물관의 1주일 평균개관 일수는 4일 이하 33%, 5일 이상 67%로 나타나, 대개는 월~금요일 개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립대학의 토요일 근무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8)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 도종필 선생의 도움이 컸기에, 이에 감사한다.

9) 정진봉, 1995. 「大學博物館의 現況과 展望」 『古文化』 46, 13~14 ; 33.

1년의 개관일수는 180일 이하 44%, 180~270일 35%, 270일 이상 21%로 밝혀져, 대학박물관의 절반 가까이 1년의 반정도 개관하고 있는 형편이고, 1/5정도는 박물관의 근무일에 맞추어서 방학중에도 월~토요일로 개관하여 관람객(방문객)을 맞이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관람인원은 1일 평균 25명 이하 63%, 50명까지 16%, 50명 이상 21%이며, 연관람 총인원은 500명 이하 16%, 2,000명까지 33%, 5,000명까지 30%, 5,000명 이상 23%로 조사되고 있다.

참고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충북대학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¹⁰⁾

〈표 2〉 충북대학교 박물관 관람인원

연도 \ 구분	초·중·고생	대학·대학원생	일반인	외국인	모듬	전년대비 (증가:▲,감소▼)
1994	2,092(45.3%)	2,164(49.9%)	254(5.5%)	107(2.3%)	4,617(100%)	▼117
1995	2,299(45.3%)	2,328(45.9%)	355(7.0%)	89(1.8%)	5,071(100%)	▲454
1996	2,167(46.4%)	1,981(42.4%)	382(8.2%)	144(3.0%)	4,674(100%)	▼397
1997	2,761(49.8%)	2,247(40.5%)	372(6.7%)	163(3.0%)	5,543(100%)	▲869
1998	1,864(33.1%)	3,032(53.9%)	602(10.8%)	122(2.2%)	5,620(100%)	▲77

충북대학교의 경우 예로 든 5년간(1994~1998)의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관람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경우에 포함되며, '94년도 4,617명 보다 '98년도에는 5,620명으로 1,000명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중·고학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관람인원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초·중·고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방문이 100명(1994) 전후에서 150명 정도로 증가(1996~1997)하여, 2일에 1명이 방문·관람하고 있어서 우리 역사와 문화 특히 중원문화의 해외 소개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1998년도 대학·대학원생의 관람 인원수에 학내 인원이 1,897명이어서 약 1,400명 이상이 타대학생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박물관을 방문한 타대학 개인학생도 포함되고 있지만, 대개는 청주지역을 정기 답사한 관련학과(고고미술사학과·사학과·역사교육과 등) 학생들의 단체입장이 주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또한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의 특색에 따라 방문(답사)하였음을 알게 된다.

ㄷ. 예산 및 재정

박물관의 예산 및 재정은 운영의 기본 궤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박물관의 재정이 빈약한 것을 지나 열악한 형편에 있음이 최근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역시 정진봉 선생(경희대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¹¹⁾ 연간예산 3,000만원 이상인 학교가 20개교로 '86년도의 14개교보다 증가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인플레이션현상과 연결시켜 보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10)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4~1998. 「박물관 관람 현황」 『年報』 3·4·5·6·7호 참조.

11) 정진봉, 1995. 「앞글」 15~16; 34.

그런데 현재의 예산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학교는 5개교 밖에 되지 아니하고, “부족하다”는 학교가 43개교나 되는 것으로 보아 절대적으로 예산-재정의 부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예산 증가 희망정도를 보면 회신학교 34개교 중에서 현 예산의 20%이상 희망 6곳, 50~99%이상 4곳, 100%이상 13곳으로, 많은 대학 박물관이 현 예산의 거의 배 가까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재원이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자체 내에서의 배정이 아주 적고, 국립대학은 국고지원이 거의 계상되어 있지 아니 한 형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㉑. 인원구성

박물관에는 필요한 인원(staff)이 충분하게 구성되어야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관장과 전임연구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²⁾

우선 관장의 경우 보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1/5정도나 되어 본연의 직분에 전념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된다. 또한 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3.6년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중임되고 있으나, 총장 직선제의 영향으로 진정한 의미의 「보직」으로 전락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전임 연구원은 박물관 본연의 큰 목표인 연구활동을 크게 책임져야 할 위치로, 활동 여하에 따라 그 대학의 활동이 좌우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조사결과로 보아 33개교(66%)에서 전임학예(연구)직이 있으며, 학예직+사무직으로 분리된 곳 16개교(32%), 학예·사무 겸직 16개교(32%)로 되어, 이 두형태의 구성이 64%로 대학박물관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대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에 학예연구사(6급)가 있으나 TO문제로 학예연구관(5급)으로의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사의 적체문제와 인원의 보충이 전혀 실시되지 못하여 크게 사기를 잃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사립대는 학예·사무를 겸직하고 있는 곳이 20개교 중 15개교(75%)나 되어, 학예원들의 전공 세분화가 되지 못하고 연구시간의 절대 부족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㉒. 소장유물과 전시

대학박물관의 소장 총유물수는 1994년 7월 전국 국·사립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718,609점(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307,402점)으로, '86년에 조사된 47개교의 380,045점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이것은 대학박물관의 적극적인 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국고 귀속과 여기에 위탁보관 협약 체결이라는 국가 - 국립박물관의 필요가 같이 맞물려서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유물 구입비가 절대 부족한 형편인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전시관계를 보면 우선 전시유물수는 45개교의 조사에서 평균 1,021점을 진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000점 미만의 유물을 전시하는 학교는 반을 넘는 27개교(57%)나 되고 있다. 또한 전시실 면적이 200평 이하인 학교가 37개교(56.9%)나 되고, 소장 유물 중 전시유물의 비율에서 20%미만인 학교가 20개교(40%)나 되어, 박물관 전체의 면적이 좁아서 전시공간도 매우 좁은 면적만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의 시설 규모 및 전용면적에 대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의 누계비율을 보더라도 34개교(68%)나 되어, 거의 2/3나 되는 대학박물관이 절실하게 전용공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12) 「위 글」 17 : 36.

13) 안승주, 1986. 「大學博物館의 現況」 『위 책』 28 : 29합집, 14 : 유원적, 1996. 「博物館 및 美術館振興法 改定試案」 『위 책』 48, 9.

14) 정진봉, 1995. 「앞 글」 13 : 28 : 31.

Ⅷ. 교육활동

박물관의 여러 기능 가운데 교육활동 또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각 대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종류를 살펴 보면, 유적답사·전시실 안내·강연회·교양강좌·비디오 상영과 그 외 몇 대학에서 박물관대학·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¹⁵⁾

좀 더 자세히 보면, 대학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학은 20개교인데, 여기에는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하는 학교가 8개교이고, 박물관대학·박물관교실과 같은 자체프로그램을 하는 학교 8개교, 일반교양강좌 6개교이다.

서울대박물관의 교양강좌를 보면, 매주 수요일 각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1998년도의 수강인원이 4,000명을 넘고 있다. 이것은 서울대 박물관의 연관람 인원이 4,000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충북대박물관의 경우 교양강좌·특별강좌·박물관대학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양강좌는 대학박물관의 교육·연구 및 사회교육기능의 활성화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계몽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1987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여러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44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좌는 박물관대학 강의일인 매주 목요일 오후에 하도록 하여, 관심있는 대학생들과 일반 사회인들까지도 같이 청강하도록 하였다.

특별강좌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강좌로서, 주로 국내·외 석학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세계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995년에 계획하여 지금까지 12회를 실시하였다.

박물관대학은 우리의 소중한 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훼손·멸실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참된 가치를 찾는 사회교육이 요구되고, 또한 대학박물관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운동의 일환으로 개설하였다. 1995년 2학기에 처음으로 개설하였으나, '96년에는 1년 과정으로 그리고 '97년부터는 사회교육원의 전문교양과정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주제를 새로이 정하여 강좌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⁶⁾

3. 대학박물관의 과제와 전망

일제시대 처음으로 보성전문학교에 대학박물관이 생긴 이래로 현재까지 대학박물관의 여러 활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향상이 있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들은 대학박물관의 여러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효율성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다.

지금까지의 대학박물관이 박물관의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학술조사와 연구·전시회·학술회의·사회교육 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 사회와의 협조와 국가시책의 발전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학박물관이 처한 현실적인 여러 여건들은 다양한 활동을 잘 조화시키면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대학박물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아직도 어려운 일이 많다. 여기에 대한 대학박물관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5) 정징원, 1995. 「大學博物館의 活動現況과 方向」 『古文化』47, 102 ; 109.

16) 이웅조, 1998. 「대학박물관의 운영과 과제-국립 충북대학교의 자료를 중심으로-」 『古文化』52, 181~193.

우선 시급한 문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마련된 범조항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대학 박물관이 대학의 종합평가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당국과 정부당국은 대학박물관의 재정문제를 포함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박물관의 시설과 인원에 관한 문제이다. 박물관의 목적과 기능에 알맞는 시설의 확보는 단순한 공간확보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전시·연구·운영에 필요한 전용건물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보다 나은 박물관의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연구원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 이들은 현재 너무 열중하고 있는 학술조사의 양을 줄이고, 앞으로 대학박물관에서 준비하여야 할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적 특색에 맞는 나름대로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박물관장의 일반 보직화 현상문제를 들어야 하겠다.¹⁷⁾ 대학박물관의 다양한 기능과 소장유물의 특성문제로 관장의 임명이 「보직」으로 되는 것은 이해한다 하여도, 최근 총장직선제를 계기로 관장의 일반 보직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어느 대학의 경우 주어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후임으로 바뀌어지는 예나, 관장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비전문가가 임명되거나, 관장의 임기문제로 박물관의 소극적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학당국과 교육부·문화관광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대학박물관이 갖고 있는 많은 가능성을 ~~발하여~~ 주도적으로 적극 협력하므로써 앞으로 있을 새 천년을 맞이하여 대학박물관의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박물관은 2000년을 “박물관의 해”로 만드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17) 정징원, 1995. 「앞 글」 103.